

통신비·소비행태 등으로 ‘금융 초년생’ 대출 상환능력 가늠

금융권, 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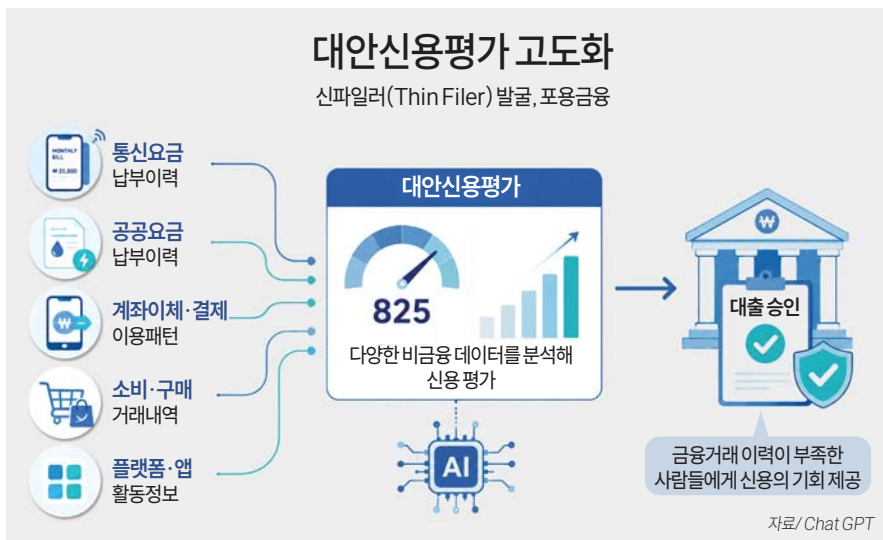
토스-SBI저축은행, 업무협약
중저신용자에 ‘토스스코어’ 활용
NH농협 ‘NH 크레딧 온’ 출범
청년층 등 위한 평가모형 개발

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를 발굴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카드 이용 기록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비와 공공금 납부 이력, 결제·송금 내역, 소비행태, 플랫폼 이용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가려내려는 전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포용 금융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과 핀테크, 신용평가회사(CB), 인공지능(AI) 기업 간 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 신용평가 협업시대

최근 토스는 SBI저축은행과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SBI저축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토스가 한국평가데이터와 공동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 ‘토스스코어’를 활용할 예정이다. 토스스코어는 카드 지출과 투자·보험 납입 이력 등 고객의 자금 관리 방식을 폭넓게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은 농협캐피탈, 카카오페이, 코리야크레딧부로(KCB), 애자일소다, 어니스트AI, 크레파스솔루션, 한국평가정보 등과 함께 대안신용평가연합체인 ‘NH 크레딧 온(溫)’을 출범시켰다. 참여 회사들은 각자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해 금융이력 부족자와 청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약 20만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니스트AI 등과 함께 ‘뱅크샐러드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있다. 소비 데이터와 플랫폼 이용 패턴뿐 아니라 건강검진 주기 등 건강행동 정보까지 종합해 신파일러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 개발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가 아닌 금융시스템의 구조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낮은 신용점수나 짧은 금융이력, 한 차례의 연체 경험만으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차주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이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신용자와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할수록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위축되고, 그 부담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모든 금융 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긴다”며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만큼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도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 미국·일본 등 해외는?

미국은 대표적인 개인신용평가체계인 ‘FICO’ 점수를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이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최근에는 임대료와 공공금,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신용평가사 엑스페리안은 ‘엑스페리안 부스트’를 통해 소비자가 은행·카드 계좌를 연결하면 통신비와 공공금, 온라인 임대료, 보험료 등의 정상 납부 이력을 신용정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탈라는 전통적인 금융정보가 부족한 케냐와 필리핀, 멕시코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기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엑스페리안과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온 등 복수의 신용평가회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신용정보를 산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자체 심사모형과 결합해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한다.

일본은 단일 신용점수에 의존하기보다 CIC 등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한 계약내용과 대출잔액, 청구·상환 현황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다. CIC도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거래·상환 정보를 수집해 회원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에 가깝다.

해외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생활·행동 정보까지 평가에 포함될 경우 어떤 정보가 대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특정 계층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안정보의 예측력뿐 아니라 정보 활용의 적정성과 설명 가능성, 차별 여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회사가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 대출 승인과 금리·한도 산정에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충분한 검증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성능이 확인된 모형을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2금융권도 포용금융 기조… ‘대안신용평가’ 확산

새마을금고, 12억 들어 시스템 구축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 개발 발주
개발 평가모델 2금융권에 공유 계획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안신용평가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비금융 데이터로 차주의 신용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대안신용평가는 통신, 소비, 공공요금 납부 등 비금융정보(대체정보)를 활용해 차주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금융거래 이력만으로 차주의 신용을 평가했던 기존 모델보다 평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재구축 용역을 시작했다. 약 12억35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최신 내·외부 정보와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 비대면 전용·외국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대안 정보를 활용한 평가 항목과 산출 로직을 설계하고,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대출 실행 후에는 행동 평점을 활용한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등급별 예상 부도율(PD)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최근 ‘비금융 서민 대안CB(신용평가) 개발 사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예산은 약 3억원으로, 개발된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자체 신용평가 체계 개발이 어려운 2금융권에 공유될 계획이다.

2금융권의 일률적인 고금리 부과 체계

를 개선하고, 금융 심사가 거절된 차주 중에서 잠재 우량 중저신용층을 선별·구제한다는 구상이다. 2금융권의 신규 중금리 대출 고객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저축은행권에서는 협업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다.

애규온저축은행은 최근 출시한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에 ‘복합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했다. 기존 자사 신용평가모형에 ‘토스소호스코어’ 신용평가모형을 접목한 것. 토스소호스코어는 토스와 한국평가데이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이다.

사업주 평가에 더해 사업장 평가 기준까지 더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사업주의 플랫폼 이용 이력을 심사 기준에 포함해 평가 기준을 고도화했다.

대안신용평가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당국의 포용금융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취업 청년, 주부, 퇴직 고령층 등의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금융권이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안신용평가 체계는 다각도로 중·저신용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신용평가 체계 개발에 인공지능(AI) 등이 활용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데이터 품질, 모델 불투명성 등이 대안신용평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모델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모형 자체의 편향성도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화 건설부문, 안전캐릭터 ‘한수호’ 공개

근로자에 안전수칙 친근하게 전달
안내판·포스터·교육자료 등에 적용

한화 건설부문은 23일 건설현장의 안전화를 확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기획한 안전캐릭터 ‘한수호’를 공개했다

‘한수호’는 흰색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밝고

친근한 표정과 듬직한 모습으로 현장 구성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낮추는 동시에, 안전수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이미지를 담았다.

캐릭터 명칭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밍 공모전과 사내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한수호’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화의 ‘한’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의 ‘수호’를 결합해 직관성과 친근함을 높였다.

한화 건설부문은 앞으로 ‘한수호’를 현

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안전포스터, 교육자료, 캠페인 콘텐츠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별·공종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에도 활용해 근로자들이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안전보건교육과 안전 캠페인, 사내 온라인 콘텐츠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에도 ‘한수호’를 적극 활용해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한화 건설부문의 안전캐릭터 ‘한수호’

어낼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친숙한 현장 안전 마스코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안전은 제도와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한수호’가 현장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안전수칙 실천을 이끄는 친근한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그룹

상반기 순익 4조 육박
전년동기 대비 13% ↑

KB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반짝이 된 가운데 증권 등 수수료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KB금융은 23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8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9922억원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들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호 보완적인 실적을 이어왔다”며 “비은행 계열사의 상반기 그룹 내 실적 기여도가 44%까지 상승했으며, 특히 증권사의 기여도는 21%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비은행의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순이자이익은 6조47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그룹 순이자마진(NIM)과 은행 NIM이 각각 1.94%, 1.74%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여신 성장과 함께 조달비용 관리로 수익성을 관리했다.

순수수료이익은 2조9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 급증했다. 증권,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계열사의 수수료이익이 큰 폭 확대되고, 은행의 자산관리 수수료 이익도 향상됐다. 특히 2분기 수수료 이익은 1조6019억원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룹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95%, 14.09%다.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0.39%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